

[SS147]

산업보건 연구를 위한 임원 포럼 II

주제: 산업보건 연구를 위한 임원 포럼

날짜: 6월 2일(화)

시간: 16:00-17:30

장소: Auditorium

좌장: Marilyn Fingerhut (미국) , 강성규(한국)

책임자: 강성규(한국)

아시아 및 개발도상국들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임원이나 CEO는 자국의 연구활동과 전략을 제시한다. 그들은 기관의 역사, 조직 및 성과와 국가기관의 전망을 제시한다. 이 세션은 청중들에게 아시아 및 선정된 주요 선도국 기관들의 산업보건 현황 개요를 제공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 쟁점: 산업안전보건 국가기관(NIOSH)의 전망

Margaret M. Kitt

원장실,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Morgantown,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1970년에 설립되었고, 미국 보건사회복지부 안에 질병관리예방본부 산하 기관이다. NIOSH는 산업안전보건 연구를 수행하는 임무를 가진 유일한 미국 연방기관이다. 이 연구는 미국 내외의 규제기관, 표준 제정기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사업주 및 근로자들에게 중요하다. NIOSH는 작업장에서 광산 및 농업 안전보건, 개인보호장구, 미끄러짐/걸림/추락과 화학물질 유해성과 같은 기존 유해성에 관한 권고를 제공한다. 당 연구원은 나노공학, 전자제품 재활용 폐기물, 수리학적 파쇄와 에볼라 바이러스 질병과 같은 지역에서의 비상 준비성 및 대응과 같은 긴급한 유해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과 미국 노동력은 스스로 재택근무, 비상대응 근로자, 고령 노동력, 이주 근로자의 특별한 필요성, 젊은 근로자들의 양호한 준비성과 같은 쟁점들을 해결할 필요성을 필요하게 만들기 위하여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 자료는 이러한 광범위한 작업장 안전보건 쟁점의 동시관리에 가능한 접근법과 우리가 근로자들을 범세계적으로 보호하는 국제 공동체로서 함께 잘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다.

OSH 문제 및 해결책에 관한 핀란드 산업보건연구원 전망

Harri Vainio

핀란드 산업보건연구원, 헬싱키, 핀란드

핀란드 산업보건연구원(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FIOH)은 70년 전에 설립되었다. 이 연구원은 사회복지보건부 산하 부문기관으로 기능을 발휘한다. FIOH는 정부 보조금과 외부 자금의 2가지 자금조달 채널을 갖고 있으며, 그 비율은 대략 50-50이다. 현재에도 매년 650명-년을 고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실무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의사결정자들에게 알리는 수단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쇄 및 전자매체와 같은 홍보활동을 통하여 이러한 해결책을 이행하는데 중점을 둔다. 2020년에 대한 본 연구의 비전은 "노동을 통한 안녕"이다. 이는 직장에서의 안녕은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절박한 부분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한다. 직장에서 안녕에 중점을 두면 근로자들이 행복해지고, 유능해지며,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 증거는 전략적 안녕에 투자한 직장들은 직장에서 불량한 안녕 기준을 가진 기업들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결근이 적고, 양호한 고객만족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본 연구의 우선분야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장래에 많은 OSH 실천규범이 유효하고 효과적으로 갱신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직장생활에서 직장에서의 안녕
- (2) 노동 장애 및 조기 퇴직 감소.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포용력을 얻을 수 있고, 많은 사회적 자산을 재활당할 수 있다.
- (3) 산업보건 협력. 많은 안녕과 생산성이 직장에서 경영진, 안전 및 보건 기능과 직원의 양호한 협력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로 다음 2가지 특수한 문제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 (4) 신기술의 안전
- (5) 북극 직장에서의 안녕

주요 OSH 난제: 프랑스 전망

Stephane Pimbert

업무상질병재난예방안전연구원(INRS), Paris, France

국립 산업재해업무상질병예방안전연구원(INRS)은 사회보장의 후원 하에서 1947년에 창립된 비영리기관이다. INRS는 사업주와 종업원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이사회에 의하여 관리된다. 약 8,500만 유로의 예산은 거의 전적으로 산업재해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국고에서 나온다. 이 자금은 기업들이 납부하는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기여금의 지분에 의하여 제공되고 사회보장에 의하여 관리된다. INRS에는 약 600명의 정규직원이 근무하며, 그 활동은 사회보장에서 내리는 지침과 노동부가 정의한 정책에 따라서 계획된다. INRS는 일반 사회보장제도(공업, 상업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 사회보험. INRS는 공공부문, 농업부문 및 광산 부문을 다루지 않는다) 안에서 근로자와 기업(사업주)을 대신하여 운용한다. INRS는 사회보장 예방 서비스, 기업의 산업보건 서비스와 같은 그 밖의 예방 협력자와 기업 및 종업원들에게 그의 역량을 제공한다. INRS는 조치를 위한 4가지 보완적 수단을 갖고 있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연수활동을 제공하며, 산업안전보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자체 전문가들은 기술적, 법적, 의학적 및 문헌적 지원을 제공한다. INRS의 현행 5개년 전략계획은 2012년에 채택되었다. 이는 사회 협력자 및 OSH 주역의 관심을 반영하는 주제를 가지고 INRS의 업무영역을 지정한다. 5가지 우선 주제(공학적 나노소재, 조직, 직장 안전보건, 심리사회학적 위험, 사지 및 허리의 근골격계 질환, 고령 근로자 고용유지 및 직업적 소외 방지)를 포함하여 22가지 산업안전보건 주제가 있다. 과학적 감시 및 감독 접근법은 부상하는 대상을 연구 프로그램에 통합시켜 향후 직업위험의 예상을 가능케 한다.

작업환경 연구의 난제

Inger Schaumburg

덴마크 국립작업환경연구원, 덴마크

국립작업환경연구원(National Research Centre for the Working Environment, NRCWE)은 덴마크 고용부 산하 국립 연구기관이다. NRCWE의 임무는 직장, 당국, 사회 협력자와 건강보건 상담사들에게 연구기반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고 국제수준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대학들에서 연구원 연수 및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국제 패널에 의한 최근 NRCWE 평가는 연구원에서의 과학적 품질과 높은 생산성을 인정하였지만, 동시에 세계화 및 급변하는 사회에서 작업환경 연구에 직면하는 일부 난제들을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덴마크, 북유럽 및 유럽 관점에서 작업환경 연구에 있어서 현 추세와 난제들을 다루고 NRCWE가 택한 접근법을 강조할 예정이다. 다음 사항들을 특별히 강조한다.

- 작업환경 연구와 작업환경 노력을 촉진하는 인구학적 성장 추세는 직업위험 방지 뿐만 아니라 건강촉진과 직장복귀(return to work, RTW)를 포함해야 한다.
- 세계화와 나노소재 및 환경친화 기술과 같은 신기술의 출현은 전통적인 작업환경 문제 및 혼합 노출에 관련된 문제 안에서 연구 필요성과 동시에 전혀 새로운 연구기반 지식에 대한 요구사항을 생성한다.
- 근골격계 질환/MSD 및 정신노동 환경 사이의 복합 상호작용
- 전통적인 안전 및 사고 연구에서 안전 및 예방 문화 기반 접근법으로의 전환
- 실용 실천, 즉 연구의 적절성과 적용성. 정부 연구기관에 대한 법적 요구. 하지만 우리가 효율적인 연구를 어떻게 실용화하고 신기술을 사용하여 목표 집단과 어떻게 소통하고 대화할 것인가?
- 세계화된 작업환경 연구 의제, 난제, 가능성 및 경고 지향

Directors' Forum for Research on Occupational Health II

Topic: Directors' Forum for Research on Occupational Health Date : June 2 (Tue.)

Time : 16:00-17:30

Location : Auditorium

Chair : Marilyn Fingerhut (USA) , Kang, Seong-kyu (Republic of Korea)

Responsible Person : Kang, Seong-Kyu (Republic of Korea)

Directors or CEO of national or public institutes from Asia and Developed countries will present research activities and strategy of their countries. They will present history, organization and achievement of institutes and perspectives of national institutes. It will give the audience to overview the occupational health status of Asian and selected major leading national institute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ssues: Perspectives from 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Margaret M. Kitt

Office of the Director,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Morgantown, USA

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was established in 1970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is housed within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nder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IOSH is the only US Federal agency charged with conduct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This research is important for regulatory agencies, standards setting organization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fessionals, employers, and workers both within the US and globally. NIOSH continues to conduct research and provide recommendations on legacy hazards such as mining and agricultural health and safety,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slips/trips/falls, and chemical hazards in the workplace, to name a few. The Institute must also consider emerging hazards such as nanotechnology, electronic recycling waste, hydraulic fracturing, and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areas such as Ebola Virus Disease. Additionally, the workplace

and the US workforce itself continues to evolve, necessitating the need to address issues such as teleworking, contingency workers, the aging workforce, special needs of immigrant workers, and better preparation of young workers. This presentation will discuss possible approaches to simultaneous management of this wide array of workplace safety and health issues and how we can work better together as an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tect workers globally.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PERSPECTIVES ON OSH-ISSUES AND SOLUTIONS

Harri Vainio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Helsinki, Finland

The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FIOH) was founded 70 years ago. It functions as a sectorial institute under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FIOH exploits two funding channels: government subsidies and external funding, in a ratio of about 50-50. Currently we are exploiting some 650 person years annually. Our emphasis lies heavily on developing solutions to complex practical problems, and then implementing these solutions through the means of informing the decisions makers, through providing services to our customers, and through outreach activities such as printed and electronic media. Our vision for the year 2020 is “Well-being through work”. It assumes that well-being at workplaces need to be thought as an imminent part of both socially and economically sustainable society. Focusing on well-being at work helps working individuals to be happy, competent and satisfied in their roles. The evidence also shows that workplaces which have invested in strategic well-being are likely to be more creative, more productive, have less work absences, and provide better customer satisfaction than enterprises with poor standards of well-being at work. Our Areas of Priority for the years 2015–2020 include (1) Well-being at work in the changing work life, while many OSH practices need to be updated to be valid and effective in the future (2) Reducing work disability and early retirement, as by this a lot of social inclusion can be gained and a lot of the society’s assets can be reallocated (3) Occupational health co-operation, because much well-being and productivity can be achieved at workplaces by a better collaboration of management, safety and health functions and personnel. We will further focus on two special issues: (4) Safety of new technologies and (5) Well-being at work in the

Arctic.

Key OSH challenges: a French perspective

Stephane Pimbert

Institute for Research and Safety on Prevention of Occupational Diseases and Accidents
(INRS), Paris, France

The National Research and Safety I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 (INRS) is a non-profit organisation created in 1947 under the aegis of Social Security. INRS is managed by a board of directors representing employers and employee trade unions. Its budget - about 85 million euros - comes almost entirely from the National Fund for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 This fund is provisioned by a share of the occupational accident and disease contributions paid by firms, and managed by Social Security. INRS has around 600 permanent employees. Its activities are programmed in accordance with directives from Social Security and policies defined by the Ministry of Labour. The INRS operates on behalf of employees and companies within the general Social Security scheme (compulsory social insurance for industry, trade and services; INRS does not cover among others the public sector, agriculture sector, and mining sectors). INRS provides its competence to other prevention partners such Social Security prevention services, companies'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enterprises and employees themselves. INRS has four complementary means of actions: it conducts studies and research in a wide variety of areas, it offers training activities, it develops and disseminates information relevant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its experts provide technical, legal, medical and documentary assistance. INRS's current five-year strategic plan was adopted in 2012. It specifies INRS's areas of work with topics that reflect the concerns of social partners and OSH players. There are 22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opics including 5 priority topics (Engineered nanomaterials, Organisation, Health and safety at work, Psychosocial risks, Musculoskeletal disorders of the limbs and of the back, and Maintaining older workers in employment and preventing occupational exclusion). A scientific watch and foresight approach allows anticipation of future occupational risks by integrating emerging subjects into research programmes.

Working environment research challenges

Inger Schaumburg

The Danish National Research Centre for the Working Environment, Denmark

The National Research Centre for the Working Environment (NRCWE) is 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Danish Ministry of Employment. The mission of the NRCWE is to carry out research activities at the highest international level in order to provide research-based knowledge to workplaces, authorities, the social partners and health & safety consultants and participate in the training of researchers and educational activities at the universities. A recent evaluation of the NRCWE by an international panel acknowledged the scientific quality and the high productivity at the center, but at the same time highlighted some of the challenges facing working environment research in a globalized and rapidly changing society. The presentation will cover current trends and challenges in working environment research from a Danish, Nordic and European perspective and highlight the approach taken by the NRCWE. Special emphasis will be on: - Trends in the demographic development which stipulate that working environment research and working environment efforts should not only involve occupational risk prevention but also health promotion and return to work (RTW) - The globalization and the occurrence of new technologies such as nanomaterials and green technology, generates the requirement for completely new research-based knowledge simultaneously with the need for research within the classic working environment problems and problems related to mixed exposures. - The complex interaction between musculoskeletal disorders/MSD and the psychosocial working environment - The transition from traditional safety and accident research to a safety- and prevention culture based approach. - Research into practice, i.e. relevance and applicability of research. A legitimate demand for a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but how do we put efficient research into practice and how do we use the new technologies to communicate and enter into a dialogue with the target groups? - Toward a globalized working environment research agenda, challenges, possibilities and caveats.